

한국, 노동시간 길고 임금은 적다

연간 노동시간 OECD 두번째...평균 두달 더 일해
일본보다는 49일 더 일하고 임금은 4분의 3 수준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번째로 긴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고용노동부와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았다. 반면에 연간 평균 구매력평가기준 임금은 OECD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 더 일한 셈이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한 꼴이다.

국가별로 보면 동아시아권에서 한국처럼 장시간 근로로 악명 높은 일본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19시간으로 한국보다 394시간 적었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3만5780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20.81달러로 각각 한국보다 2670달러, 5.14달러 더 많았다.

한국 취업자는 일본보다 49일, 2.2달 더 일하는 셈이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일본의 92.5%, 시간당 실질임금은 4분의 3 수준으로 받았다.

OECD 국가 중 가장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적은 독일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독일 취업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371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4만4925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77달러였다.

한국 취업자는 독일 취업자보다 4.2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독



일의 73%, 시간당 실질임금은 절반 수준이었다. 미국 취업자의 연간 평균 노

동시간은 1790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5만8714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80달러였다.

한국 취업자는 미국에 비해서는 1.8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56.4%, 시간당 실질임금은 47.7% 수준으로 받은 셈이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6만389달러), 미국(5만8714달러), 스위스(5만8389달러), 노르웨이(5만908달러), 네덜란드(5만670달러), 호주(5만167달러), 덴마크(5만24달러) 순이었다.

반면에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2246시간으로 가장 긴 멕시코는 연간 실질임금이 1만4천867달러로 가장 낮은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헝가리(1만9999달러), 에스토니아(2만1564달러), 체코(2만1689달러), 슬로바키아(2만2031달러) 순으로 연간 실질임금이 낮았다.

/김대성기자bigkim@연남뉴스



“갤럭시노트7 시험해보세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의 아트리움에서 진행 중인 ‘갤럭시노트7’ 체험전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노트7’과 ‘S펜’의 방수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7월 주택거래 역대 두번째 전월세 거래는 전월보다 줄어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7월 기준으로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거래량은 9만5578건으로 작년(11만675건)보다는 13.6% 감소했지만 2011~2015년 평균(7만1000여건)보다는 33.8% 증가했다. 특히 7월 주택거래량은 작년을 제외하면 주택거래량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다였다.

7월 주택거래량을 지역별로 나누면 수도권이 5만6629건, 지방이 3만8949건으로 작년에 견줘 각각 0.8%와 27.3%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85.8% 증가했으며 지방은 4.9% 줄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의 7월 주택거래량은 2만2852건으로 사상 최다였다.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작년보다 6.9%, 5년 평균과 비교하면 127.2% 늘어났다. 7월 주택거래량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6만3906건, 연립·다세대주택 1만7843건, 단독·다가구주택 1만3829건이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13.8%·10.3%·17.0% 감소했다.

한편 7월 전월세거래량은 11만211건으로 작년(12만2552건)보다 10.1%, 전월인 6월(11만4984건)보다 4.2% 줄었다.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은 아파트가 작년과 전월보다 각각 4.9%와 0.8% 감소한 5만259건, 아파트 외 주택이 14.2%와 7.0% 줄어든 5만8152건이었다. /연합뉴스

광주 콘택트렌즈 기업 ‘폭풍 성장’

지오메디칼 등 5곳 지난해 매출 300억·고용창출 511명

광주 지역 콘택트렌즈 기업들이 장기 불황 속에서도 발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는 콘택트렌즈 업체는 뉴바이오, 지오메디칼, 유니콘텍, 아이코디, 매직콘 등 5곳이 지난해 매출액 300억원과 51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모는 지난해 1760만 달러에서 올해 25%가량 늘어난 2200만달러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이미 1520만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아이코디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올해 600만달러 가량을 수출했다.중국 인증을 획득한 데다 신제품 출시와 제품 인증이 확대되면 내년에는 1000만달러 규모

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오메디칼은 신규 공장에 자동생산 라인을 구축,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유럽, 동남아, 중국 등에 올해만 850만 달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콘텍도 인증 획득 후 쿠웨이트에 3년간 5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에 지역 자생 콘택트렌즈 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이 선정돼 2019년까지 국비 포함 2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원샷법’ 시행...1호 기업 다음달 말 탄생

<기업활력 제고특별법>

조선·철강·해운·건설 등 전체 업종 중 30% 신청 자격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느 업종의 기업이 수혜자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라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다만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의 공급과잉 여부가 중요한 셈이다.

산업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업재편실시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5개 중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만족하면 과잉공급 상태로 인정된다.

실시지침은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조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다. 시행령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

은 전체 업종 중 30%가량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6월 KB투자증권이 발표한 과잉공급 예상업종은 전체 82개 업종 가운데 24개 업종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KOSPI 200종목 중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에 따른 과잉공급 예상 기업은 93개로 추정된다. 다만 어떤 보조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 기업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식 원샷법 1호 적용 기업은 빨라야 9월 하순께에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은행권 中企 추석 자금 47조 푼다

올 설 보다 3조원 늘어

은행권이 올 추석을 맞아 47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시중에 자금을 돌게 하기 위해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우리·신한·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올 추석을 맞아 내달 말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47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8조원(20.5%), 올해 설 때보다는 3조원(6.8%) 늘어난 것이다.

신규지원은 17조원이고 나머지 30조원이 만기를 연장해 주는 금액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소비둔화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고려해 예년보다 자금지원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0조원을 지원해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

업자와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작년 추석과 신규지원금은 같지만, 만기연장을 1조원 늘렸다.

KB국민은행도 9조원을 지원한다. 이 중 신규자금 지원은 3조원이며 나머지는 최대 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KEB하나은행은 작년보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지난 추석에 3조5000억원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2.5배 늘어난 9조원을 지원한다. 장기 저성장 시대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게 KEB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시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신규지원금 3조원을 포함해 모두 9조원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만기연장을 1조원 정도 더 늘렸다. 특수은행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를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3조원을, 기업은행은 7조원을 각각 지원한다.

/연합뉴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